東大時報

發行編輯兼印刷人 鄭斗石
主幹 金鎭福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時報社
電話② 1685 1686 6901
(週刊)
月定購讀料 貳百圓
一部定價 五拾圓

순가뿐登錄 막바지에

오는十日로 磨勘迫頭

校費奬學生은 今明間發表

순가뿐 大學의 登錄서준이 저물어, 오는 十日 (土) 下午五時로 磨勘이 迫頭하였다。지난 二日부터 人文系가 七萬七千圓 自然系가 八萬五千圓씩 大學別指定銀行에 納付하고있는 今年度 第一學期 登錄金納付成績은 例年보다 好調를 보여주고있다。

그런데 納付處를 大學別로 보면 佛敎大學과 法政大學이 韓一銀行 中部支店이고 文理科大學과 農林大學은 朝興銀行 鍾路支店에 納付토록 되어있다。한편 學校當局에서는 今年度 新入生들의 諸般 具備書類를 오는 九日부터 學生課에서 交付한다고 發表하고 方今査定中에있는 校費奬學生은 今明間選拔을 完了하고 發表케 될것이라고 한다。

和蘭奬學生 來十九日 選拔

文敎部에서는 和蘭政府의 奬學金支給 對象者로 三名 選定을 받고 同選拔試驗을 依賴하는 實施하리라 支給될 月間 二時 六個 同奬學金 受給者는 自然系學科 大學 卒業者以上의 學歷을 갖인者로서 專攻分野에 三年以上 從事、滿四十才未滿으로 英語나 和語에 能通한 者라야 한다。

科目은 專攻科目과 英語나 和蘭語라고 하는데 應試希望者는 學生課에연락을바라고있다。

泰國「안천」敎授 來校

實習農場등視察

안천敎授

泰國極東및東南亞地域敎育視察차 우리나라에 온 泰國 首都 방콕의 카세사프 大學校 園藝學科長 「안천·콤포」敎授가 十一月二十八日 下午一時 來校한다。鄭總長을 비롯한 農大敎授들과 泰國 大使 및 泰國 北端地域에 있는 農場을 視察하였다。

韓國과 氣候가 거의 비슷한 泰國의 名産인 人參과 비의 移植이 可能한가를 調査·實驗하기 위한것이라고 한다。

農林大 作物園藝學科 李培成敎授와 園藝部 菜蔬課(舊園藝試驗場)를 들러 本校 農場을 視察한 「안천」敎授는 特히 溫室施設을 細密히 살폈다。

大學院 謝恩會

構內食堂서 盛了

六一年度 大學院 碩士學位課程修了者 二十二名은 二月 二十七日 午後 六時 大學院 閱覽館에서 盛大한 謝恩會를 베풀었다。이 謝恩會에는 大學院의 여러敎授들이 參席하여 師弟間의 깊은 情을 나누는 謝恩會를 베풀었다。

이번 「안천」敎授의 來校는 韓國과 泰國 北端地域의 氣候가 거의 비슷한 韓國의 名産인 人參과 비의 移植이 可能한가를 調査·實驗하기 위한것이라고 한다。

農林大 作物園藝學科 李培成敎授와 園藝部 菜蔬課(舊園藝試驗場)를 들러 本校 農場을 視察한 「안천」敎授는 特히 溫室施設을 細密히 살폈다。

構內食堂에서 情든 師弟들과 惜別의 情을 나누는 謝恩會를 베풀었다。이 謝恩會에는 大學院의 여러敎授들이 參席하여 師弟間의 깊은 情을 나누었다。

朴好吉君 當選

高大新聞 懸賞募集

高大新聞 紙齡三百號 記念 全國男女大學生懸賞文藝作品募集 詩部에 朴好吉君의 作品 「가을의 散調」가 當選되었다。

本校 英文科二年 朴好吉君의 作品 「가을의 散調」가 當選되었다。

同紙 紙齡三百號 突破를 記念하여 위하여 內外新聞人과 大學新聞 關係者를 비롯한 招請 文藝入選者들을 招請 「칵텔·파아티」를 盛大히 祝賀 同校 敎授會館에서 開催한다。

第二期入團式嚴修

—來日의 干城됨을 宣誓—

五日부터敎育을實施

ROTC 本校 ROTC 第二期生 百名入團式이 五日 上午 十時 中講堂에서 鄭總長과 金敎學處長、金庶務處長 參席 讀에 이어 나라에 忠誠하고 軍規律을 嚴守하며 卒業後 必히 軍人으로 服務하는 新入團者들의 宣誓가 있은다음 知德과 武藝를 練磨하여 將來 이 나라 守護에 萬全을 期하는 鄭總長과 韓敎官團長의 訓示가 있었다。이어 式은 一期生 代表 崔德鉉(生四)君의 歡迎辭와 入團生 代表 金仁圭(政三)君의 答辭로 끝을 맺었다。그 뒤에 나온 入團生 一人 口頭試驗、身體檢査 및 身元照會를 거쳐 十七日부터 二十八日 最終 合格者 二百名이 發表되었다。

(R·O·T·C 宣誓光景)

學生圖書 兩課長交替發令

庶務·學生등四主任級도

金學生課長

羅圖書課長

本校는 지난二月二十八日字로 學生、圖書兩課長및 學籍、學生、庶務主任등 大學院 敎務主任등을 交替 새로운 人事措置를 斷行하였다。

同人事發令에 依하면 學生課長에는 金炳麟(前圖書課長)氏、圖書課長에는 羅相翊(學生課長)氏로 各各 交替되었다。한편 各 主任級 人事移動은 다음과같다。

(괄호안은 前職)

▲學生主任 崔載九(大學院敎務主任)

▲大學院敎務主任 陸壽永(大學院敎務主任)

▲庶務主任 鄭東一(學籍主任)

▲學籍主任 徐廷天(庶務主任)

選手再登錄要望

水上競技聯盟서

大韓水上競技聯盟에서는 同聯盟所屬 選手의 再登錄을 바라고 있는데 各級選手들은 오는 三〇日까지 再登錄手續을 해야 한다。

團體戰서 또 凱歌

스키班、個人戰續도優秀

本校「스키班」에서는 지난 二月十九日 부터 二十三日까지 五日동안 東大스키의 傳統을 다시 그런데 第四十三回全國體育大會 冬期스키大會 一般의 緊要性을 認識시켜 愛林精神을 加一層 促求하기 위하여 二十日(地方)、三十日(中央)兩日間 全國 中·高等및 大學生 스키班 (大學院) 君 等이 各各 二位를 차지하여 시상번 자랑했다。

同 스키班은 統領旗 爭奪戰에서도 大統領旗 爭奪한바 있음 이번 (經四) 안병식 (政三) 엄 雄辯大會를 開催한다。同大會 參加 雄辯題는 山林綠化및愛林思想 鼓吹를 위한것으로서 自由題이며 時間은 十分間이라고 한다。式은 國旗拜禮、愛 하며 卒業後 必히 服務하는 新入團者들의 宣誓가 있은다음 知德과 武藝를 練磨하여 將來 이 나라 守護에 萬全을 期하는 鄭總長과 韓敎官團長의 訓示가 있었다。이어 式은 一期生 代表 崔德鉉(生四)君의 歡迎辭와 入團生 代表 金仁圭(政三)君의 答辭로 끝을 맺었다。그 뒤에 나온 入團生 一人 口頭試驗、身體檢査 및 身元照會를 거쳐 十七日부터 二十八日 最終 合格者 二百名이 發表되었다。

大學院에 16名合格

十六日第二次募集試驗

지난 二·三 兩日間 六二年度 碩士學位課程 新入生選拔試驗을 實施한 大學院에서는 五日 上午 十時 合格者 名單을 發表하였다。

▲經濟學科=鄭天壽 ▲農學科=鄭暾 ▲政治學科=李正雄 ▲哲學科=宋錫球 ▲佛敎學科=金仁德 ▲英文學科=辛鎭基 ▲國文學科=朴貞姬 ▲史學科=鄭琪班 ▲法學科=申鉉培 ▲化學科=曹鎭 ▲博士課程 生物科=愛林思想鼓吹 全國雄辯大會 協會에서는 學生들 自身에게 注入함과아울러 一般民에게 認識 山林綠化의 緊要性을 認識 愛林精神을 加一層 促求하기 위하여 愛林思想을 注入함과아울러 一般民에게 認識 山林綠化의 緊要性을 認識 愛林精神을 加一層 促求하기 위하여 大韓山林組合 協會에서는 學生들 自身에게

新年度開講을 앞두고

‖講義內容充實과 休講根絕을 다짐하면서‖

社說

安昨年度 一九六一年度 五·一革命을 曾有의 맞아, 未曾有의 激動되는 政治情勢속에서 特히 大學敎育은 果敢한 文敎改革 施策에 直面하여 相當한 陣痛과 混亂을 免치 못하였던것이 事實이었다。其後 얼마 안가서 大學敎育界에서 그 姿勢를 가다듬고 政府의 文敎施策을 받아드릴 態勢를 갖추고 萬全을 期해 보려고 其間 많이 애써왔다함도 다 아는 事實이다。

同施策中에서도 特히敎育特例法의 施行으로 大學整備가 斷行되는 바람에 大學生 定員은 減縮되고 敎授의 待遇向上등 한때 私立大學運營이 難望視된적도 不無이었다。그러나 大學運營當局側에서는 從來의 一部 陳腐한 運營方式을 止揚하고 策定劃當된 學生定員을 갖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合理的 運營을 圖謀해 沮沒하고 또 模索해 오려고 있는 것이 私立大學의 一般的 傾向인 듯하다。

더군다나 大學卒業生에 對한 學士學位授與가 國家管理化되고 初年度 國家考査가 施行 發表된 以來 各大學에서는 學校運營의 方向을 從來의 財政的인 運營面보다도 質的向上을 包含하는 學事行政에 置重하고、國家가 要求하고 있는 結果를 맺고저 相當한 硏究와 實踐이 推進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같은 一九六二年度 一學期 開講은 追到하였다。

本校에서는 지난放學中에 四個大學 十四個學科에 亘하여 履修學科目課程을 全面的으로 再檢討하고、數次에 걸친 敎授會와 科主任敎授會등을 거쳐 새로운課程表가 編成되었거니와、同課程編成이 只今의 實情으로 보아서는 거의 完全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歡迎하는 우리보다 몇倍以上諸君들의 가슴은 벅친 기쁨과 希望에 부푸러 그興奮이 아직도 가라앉지않았을것같다。諸君들은 入學되는 그날부터 앞으로 四年間 名實相符한 大學生으로서 學問의 眞理를 探究하는데 첫째 마음의 準備를 튼튼히 하겠다。只今까지의 高等學校에서는 全혀 受動的이며 他律的인 敎育을 받아왔으나 只今부터는 自律的이며 能動的인 學究生活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諸君들로 볼때 生涯를 通한 一大轉換期가 아닐수 없는 것이다。

또한 大學에 들어서 여러모의 새로운 環境과 學風과 習慣에 어리둥절 해질 때가있을 것이나 可及的 速한 時日內에 익숙해지도록 努力해야할 것이다。그러기에 諸君들은 于先 大學이란 곳은 어떠한 곳인가를 短時日內에 正確히 認識할이 要求되는 바라 하겠다。大學生이 되면 于先 여러가지 自由가 賦與되며 때로는 奇異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다。그 自由란 大學의 自由、學問의 自由는 勿論 십지어는 참된 自由는 아니지만 平素에 學習에 熱中하나 해도 當場에는 누구도 强要하지 않는 이를테면 放恣한 自由까지도 一時默認된다는 것은 分明히 過去 高等學校에서는 全혀 接할수 없었던 새로운 環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그러기에 自由를 行使하기前에 먼저 大學을 認識해야만되겠다는 것을 强調하려는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毋論 大學이라고 하는 곳은 周知하는바로서 「眞理의 探究와 敎育의 場」으로서 國家社會에 奉仕할 수 있는 人材를 養成하고 나아가서는 世界人類 平和에 寄與할수 있는 學問的 努力과 이에 貢獻할 目的으로 學에서 諸君들이 四年間 學究生活을 하게 된다는 것은 決코 긴 歲月은 아닐 것이니 諸君들은 이貴重한 四年間을 暫時라도 疎忽히 하므로서 時間的 浪費가 있게 된다면 個人的 損害는 勿論이거니와 國家的、社會的 損失은 實로 莫大하다 할을 깊이 認識해야 되겠다。

諸君들에 對하여 大學生活에 關한 啓蒙을 한 時間 바 飾裕는 없다。한 時間 納得하여 뼈 大學을 認識하고 向後 四年間의 學究生活에 有終의 美를 期約할수 있는 그 첫 出發을 意義있게 내디디야 하겠기에 敢히 一言하여 둔다。

新入生에게 주는 말

今年度新入生 入學式이 三月十二日에擧行된다。入學되는 諸君들은 例年과는 좀달리 여러모의 試驗難關을 突破하고 最後의 勝利를찾이한 俊才라고하는데 더한층 意義가있으며 또 우리로서도 크게歡迎하는바이다。

歡迎하는 우리보다 몇倍以上諸君들의 가슴은 벅친 기쁨과 希望에 부푸러 그興奮이 아직도 가라앉지않았을것같다。諸君들은 入學되는 그날부터 앞으로 四年間 名實相符한 大學生으로서 學問의 眞理를 探究하는데 첫째 마음의 準備를 튼튼히 하야 하겠다。只今까지의 高等學校에서는 全혀 受動的이며 他律的인 敎育을 받아왔으나 只今부터는 自律的이며 能動的인 學究生活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諸君들로 볼때 生涯를 通한 一大轉換期가 아닐수 없는 것이다。

大學에 들어서 오면 學風과 環境과 習慣에 어리둥절 해질 때가있을 것이나 可及的 速한 時日內에 익숙해지도록 努力해야할 것이다。그러기에 諸君들은 于先 大學이란 곳은 어떠한 곳인가를 短時日內에 正確히 認識할이 要求되는 바라 하겠다。大學生이 되면 于先 여러가지 自由가 賦與되며 때로는 奇異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다。

그 自由란 大學의 自由、學問의 自由는 勿論 십지어는 참된 自由는 아니지만 平素에 學習에 熱中하나 해도 當場에는 누구도 强要하지 않는 이를테면 放恣한 自由까지도 一時默認된다는 것은 分明히 過去 高等學校에서는 全혀 接할수 없었던 새로운 環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그러기에 自由를 行使하기前에 먼저 大學을 認識해야만되겠다는 것을 强調하려는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毋論 大學이라고 하는 곳은 周知하는바로서 「眞理의 探究와 敎育의 場」으로서 國家社會에 奉仕할 수 있는 人材를 養成하고 나아가서는 世界人類 平和에 寄與할수 있는 學問的 努力과 이에 貢獻할 目的으로 學에서 諸君들이 四年間 學究生活을 하게 된다는 것은 決코 긴 歲月은 아닐 것이니 諸君들은 이貴重한 四年間을 暫時라도 疎忽히 하므로서 時間的 浪費가 있게 된다면 個人的 損害는 勿論이거니와 國家的、社會的 損失은 實로 莫大하다 할을 깊이 認識해야 되겠다。

諸君들에 對하여 大學生活에 關한 啓蒙을 한 時間 바 飾裕는 없다。한 時間 納得하여 뼈 大學을 認識하고 向後 四年間의 學究生活에 有終의 美를 期約할수 있는 그 첫 出發을 意義있게 내디디야 하겠기에 敢히 一言하여 둔다。

日本林業의 現況

東南亞 林業部門 쌔미나에 다녀와서

權寧大

日本은 二次大戰前에 優秀한 森林國으로서 合理的인 形態로經營되어 減少되었는데 近年資源開發事業의 一部로서保護育成에 重點施策을 實施하는反面外材導入으로 木材需給을調節하고 있으며 林野面積은 日本國土面積 三七、二八四、〇〇〇町步에 對하여 六七%인 二四、九九八、三〇〇町步이며 林野面積 約三〇%가 國有林이며 公有林이 五八%、私有林이 一四%이다。

樹種別인 蓄積量을 보면 針葉樹林이 五、九%(八〇九、一五三、〇〇〇立方米)이고 闊葉樹林이 五四、一%(九五二、〇三三、〇〇〇立方米)로서 實施現在 樹種轉換策을 擴大生産性을 增大하고 樹種別 生産期短縮 造林作業 伐採量은 年 七〇〇(立方米)이고 伐採量中 薪炭材의 機械化 伐採量은 年年 減少되여가고 있으며 代用燃料를 奬勵하여 消費量을 制限하고있는 其 模樣이다。

題로서는 森林試驗硏究課 造林作業 林業機械化 業績標準 企業經營의 施業標準等이 重要한硏究課題였다。以上의硏究課題中에 經營의 近代化에關한問題로서 家族經營의 施選定、肥培管理等에 對한 硏究의 驅除試驗으로서 病虫害의 養苗期、成林期、各 伐木기로 區分하여 B、森林保護部門 豫防對策으로서는 品種改良、適地 植栽、病害의 硏究 硏究 造林地利用에 對하여서는 森林生産에 關하여 下草栽培(畠農을 主로한) 와 牧養業의 合理化를 爲하여 放牧試驗을 實施하고 있다。

C、木材利用部門 木材利用의 資源節約 合理化를 爲하여 廢材利用 加工試驗 織維板加工、集成材 試驗等을 合板의 二次加工 企業體에 對한 硏究하고 其 導로서 相當한 結果는 直接 가지오고 있다。 以外에 製炭材料로서 土炭을 便用하고 있으며 成型木炭은 一部 加工하여 輸出까지 하고있는 狀態였다。

現下 森林資源이 不足한 狀態에서는 方面으로 硏究하여 이러한 最急務라 할것이다。 造林施策도 將來 利用을 前提한 小徑木生産과 集團造林이 可能한 限度內에 實現되어야 할것이다。

林業技術普及은 指導方針 推移에 따라서 三段階로 區別되고 있다。

第一段階는 技術普及 段階는 中心으로한 傳達期 第三段階는 農民敎育의 見地 育成하는 時期이며 第三期는 林業技術普及員과 林業經營指導員의 實態 適應한 普及活動期라고 볼수있다。 普及硏究의 成果를 急速 實施하고 있으며 其 成果는 森林所有者나 林産業者에게 普及케 하는것이다。 普及活動의 推進力이되는 林業普及 推進區域 諸問題 置하여 普及上의 分析 檢討하여 方法을 實證的으로 硏究 效果的인 普及活動을 實施하는데 其 成果를 急速 報告하고 普及하는것이다。

機關에서 林業技術을 硏究 案出된 優秀한 林業技術을 森林所有者나 林産業者에게 普及케 하는것이다。 普及活動의 推進力이되는 林業普及 推進區域 諸問題 置하여 普及上의 分析 檢討하여 方法을 實證的으로 硏究 效果的인 普及活動을 實施하는데 其 成果를 急速 報告하고 普及하는것이다。

一線地區 森林

佛教의 一貌

東大 研究 노트

地域史의 하나로서 (上)

李載昌

(一)

歷史學 研究方法의 하나로써 特히 近年에 이르러 乃至 高唱되는 地域史 研究도는 佛敎史學에 있어서 定될것으로 韓國佛敎史의 믿는다。 分은, 識者에 있을 따라 달리 할 수 있는 筆者는 面에서 嶺南、湖南、中部、嶺東、그리고 北部地方의 五地域으로 나누어 그 地域的인 特殊性과 發達相을 認定하였다고 본 研究할 수가 있다。

그리하여 筆者는 이러한 또 他 地方 開拓이라 比하여 깊고 가장 因緣 할 수 있는 嶺南 未來의 東地方에 對한 地域的인 佛敎史研究를 試圖해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글의 主題이다。 그러나 이 作業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萬人이 다 잘 아는 것이 있는 것은 三寺—乾鳳、洛山、曦山—뿐이다。 古寺 이 方面에 둔 조금이라도 珍奇한 것이 있는 것은 모두 寄學生들의 또한 參考로 先學諸賢의 敎 示를 발판을 삼고 저 옛글字 적어본다。

(二)

乾鳳寺는 佛敎가 公認되기 新羅에서 年前 即 法興王七年 庚子(五二〇)에 創建(初創時 寺名은 鷲寺)되었으므로 嶺東地方에서는 가장 古 歷史를 가지고 있길 이다。 形成하는 받아들이는 者는 世界의 內外의 事件 奇蹟을 認識하는 그의 作品 統合하여 世界의 힘을 創造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靈魂을 刻 詩像을 이루는 것이다。 (그는 父業을 繼承 肺結核醫였다) 親舊 그들의 心靈을 掘 親舊가 理解하며 되어 자기자신을 標 하여 一般的인 事物을 理解하려는 것

(三)

洛山寺는 新羅의 義湘大師가 唐나라에서 歸國 한後 (671) 新羅文武王十一年에 創案하여 義湘大師를 가리킨 것이다。 이 곳에서 海龍王의 八部衆 海東 各 水精念珠와 如意寶珠를 運命 七日齋後에 員容을 觀音菩薩의 모습이 나타나 竹 이 法堂을 솟아난 것이다。

(四)

曦山寺는 新羅의 義湘大師가 唐나라에서 歸國 한後 (671) 新羅文武王十一年에 創案하여 義湘大師를 가리킨 것이다。 이 곳에서 海龍王의 八部衆 海東 各 水精念珠와 如意寶珠를 運命 七日齋後에 員容을 觀音菩薩의 모습이 나타나 竹 이 法堂을 솟아난 것이다。

(五)

乾鳳寺는 新羅의 義湘大師가 唐나라에서 歸國 한後 (671) 新羅文武王十一年에 創案하여 義湘大師를 가리킨 것이다。 이 곳에서 海龍王의 八部衆 海東 各 水精念珠와 如意寶珠를 運命 七日齋後에 員容을 觀音菩薩의 모습이 나타나 竹 이 法堂을 솟아난 것이다。

(六)

이 때 泗溟大師가 妙香山에서 七十老軀를 이끌고 敢然히 일어선 西山大師가 忠義를 盟誓하고 全 國叢林에 檄文을 띄워 義旗를 들매, 泗溟大師、處英大師、靈 圭大師 等이 各地에서 義僧兵을 呼應 救國의 丹心으로 奮 起하여 多大한 戰績을 세우고 있지마는 壬 辰倭亂을 겪고 난後 그 被害狀況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에 數 없이 많이 存在해 있던 佛敎文化財、例 컨데 經典、經板、佛像、鐘 등을 掠奪해 가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程度로 被害는 莫甚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宣祖三十七年(1604) 壬辰倭亂의 餘和會議 에서 領議政 韓明會、申叔舟、上黨 府院君 韓明會 等을 보내어 奴婢、鹽盆 田地 等을 下賜하였으며 李朝代代를 通하여 王室의 願堂으로써 特 惠를 입은것 等은 두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上에서 특히 「크로즈·엽」 되는 것 七四二~七六四) 衆德王代(一 徵法師가 創建한 것 陀萬日會에 設置한 彌勒 境遇는 例外로써 成 宗 孝大君 領議政 特히 敎公認 以前에 創建된 寺刹로서 新羅法興王代의 佛 乾鳳寺의 第一特徵은 于先 創建年代에 있으므로 이다。 그러나 이 들수가 있을것 室 願堂으로써 特 惠를 입은것 等은 阿彌陀佛의 靈 異 道場이었기 때문이다。 乾鳳寺를 말할때에 또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것은 松雲泗溟大師에 關한 일이다。 壬辰倭亂이 突發하자 實踐하여 義僧을 募集 하여 乾鳳寺였던 것이 바로 義僧兵 起 居 地였다。 이와같이 泗溟大師의 募義之地로써 乾鳳寺는 泗溟大師와의 關係에서 看過할수 없는것이 있으니 그것은 東方 乾鳳寺 泗溟大師와의 關係로 말미암아 乾鳳寺는 壬辰倭亂 이후 그 名聲이 더욱 높아졌다。 이와같이 乾鳳寺는 泗溟大師의 募義之地로써 乾鳳寺는 壬辰倭亂 이후 그 名聲이 더욱 높아졌다。 이와같이 乾鳳寺는 泗溟大師의 募義之地로써 乾鳳寺는 壬辰倭亂 이후 그 名聲이 더욱 높아졌다。

生命的 이미지

허버어트·리이드 <下>

言語에 誠實한 內的인 作家

朴尙均

안정된 調和속에 文學은 깃들어

앙리·마띠스의 風景

(佛 HenriMatisse 1869~1954)

현대 知性人들

思惟는 人間欲求의 段階 實現手段

器具主義者이며, 시카코學派의 中心人物

生涯 思索된 一貫으로 民主精神

自然科學 研究

自然科學研究會編

菊版 三五〇面 定價二三〇〇圓

出寫·學校團體記錄寫眞帖!

ANSCO와 KODAK이 共히 認定하는 韓國 唯一의 칼라 現像所

天然色寫眞館

商業商品廣告寫眞

映畫스틸

特設 移動色寫眞館

새한色寫眞現像所 <國防部옆> 서울特別市龍山區厚岩洞105의65 Tel ③2467

原稿募集

學生原稿를 隨時 募集하고있아오니많은 投稿가 있기를 바랍니다。

<記>

<目>

① 研究論文……二十枚內外
② 學生論壇……十五枚以內
③ 隨筆……十五枚內
④ 小說……五十枚以內
⑤ 詩……三篇以內
⑥ 其他·記行文·學術調査報告記等……四十枚以內

△投稿處=本社 投稿函

△原稿應勸=每週土曜日

但、揭載된 原稿는 本社所定稿料를 支拂함。

(散文=一枚當 一五〇圓、詩=一篇當一〇〇〇圓)

西紀一九六二年三月 日

東大時報社白

本報廣告 下命은

②一六八五—七 東大時報社廣告部로

受驗準備書

菊版 三五〇面 定價二三〇〇圓

本書는 學士考試의 準備로서 自然科學 全般에걸쳐서 史的으로 解說하고 天文學·物理學·化學·生物學·原子·電子時代 宇宙旅行等 各章의 解說을 모두 最新的인 資料下에 依하였으며 特히 各章끝에는 練習問題 五〇〇問을 附錄으로 添付하였으니 學士考試에는 萬全을 期하였다고 볼수있다

供給處 市內樂園洞建國大學校正門앞 青雲書林

販賣處 各大學正門앞 書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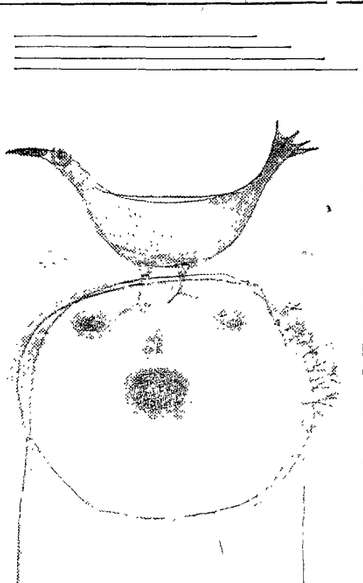
鮮于輝論試考

<作品「불꽃」을 中心으로>(上)

平壤 張文

作家研究

지난 一九五八年度 文學藝術誌에 發表된 以來 戰後主要作品리스트에 오른것은 勿論<時代小說>或은<問題小說>로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또 云謂되고 있는 鮮于輝氏의 作品<불꽃>이 그렇게 時代小說或은問題小說로서 잘못 認識되고 있음은 말할것도없거니와 잘못 評價되고 있다는 데에 基因한다.



安鹿姜 <이맛봄>·컬

詩題로서의 自畫像

金元來

挿畫

李戊寅

自畫像

身邊雜記·斷想 等 五枚以內·男女學生 隨時投稿歡迎

人間行列

徐明子

金石文의 發達

李相春 (下)

絕唱과 珠玉의 詩篇들

徐廷柱詩集「新羅抄」

足發會同人『마드라오·네』

테마는「안티·리얼리즘」

(끗)(뜨) 어떤 未決囚 (下)

尹泰吉 作 權映俊 畫

第三版 出刊!

高等考試受驗生·國家公務員·敎師·法學徒를 爲한 快著!

革命憲法

高等考試委員·國民大學敎授 五級考試委員·서울法大講師 姜炳斗 著 (菊判 600面 定價 3,000圓)

—憲法과 非常措置法의 一元的說明으로써 新境地를 開拓한 新憲法書—

☆本書의 特色——非常措置法과 憲法과의 對照, 外國憲法과의 比較, 佛蘭西第五共和國憲法·西獨基本法·와이마르憲法·伊太利憲法·日本憲法·美國憲法等 全文收錄, 國家再建最高會議 法令 網羅!

絕讚裡 發賣中

斷然 類書를 壓倒!

修學社刊 韓國出版協同組合 供給

—祝 入學— 1962 New Mode

高級紳士服

서울鍾路二街 YMCA越便 信信洋服店

入(祝)學

大學校專 服門 新興制服社

新新百貨店 連鎖街 302號 Tel ⑧1646

大學敎材 良書案內

서울特別市中區乙支路三街三二六番地 電話 ②二五七八 振替 서울三一六一 서울考試學會 發行

慶熙大學校大學院長 高等考試委員 高秉國 監修 要領法學通論 菊版 二九〇面 값 九〇〇圓

東國大學校敎授 韓雄吉 著 韓國憲法의 諸問題 菊版 四〇〇面 값 三、〇〇〇圓

서울大學校法科大學敎授 高等考試委員 韓泰淵 著 憲法講義 菊版 二六五面 값 一、〇〇〇圓

中央大學校敎授 高等考試委員 李鍾極 著 新行政法(上) 菊版 三七〇面 값 二、八〇〇圓

中央大學校敎授 高等考試委員 李鍾極 著 新行政法(下) 菊版 三八〇面 값 二、八〇〇圓

前法制室長 康明玉 著 新稿行政法總論 菊版 三六五面 값 一、五〇〇圓

前法制室長 康明玉 著 新稿行政法各論 菊版 三六〇面 값 一、五〇〇圓

漢陽大學校敎授 서울大學校講師 張庚鶴 著 民法(總則) 菊版 三〇〇面 값 二、〇〇〇圓

漢陽大學校敎授 서울大學校講師 張庚鶴 著 民法(物權法) 菊版 三三〇面 값 二、五〇〇圓

漢陽大學校敎授 서울大學校講師 張庚鶴 著 民法(擔保物權法) 菊版 三七〇面 값 二、五〇〇圓

前法制室長 康明玉 著 行政法(上) 菊版 三五〇面 값 二、五〇〇圓

前法制室長 康明玉 著 行政法(下) 菊版 三五〇面 값 二、五〇〇圓

東國大學校敎授 高等考試委員 金基洙 著 國際法 菊版 三五〇面 값 二、五〇〇圓

慶熙大學敎授 鄭雲龍 著 近代民族主義發達史 菊版 三三〇面 값 一、五〇〇圓